

# ‘노을(霞)’의 語彙史

李 秉 根\*

## 1. 머리말

노을 囀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물들어 별장게 보이는 현상… 囀 놀

이는 자연계의 한 현상에 대한 사전상의 짝막한 기술이다. 이 자연현상은 그러나 인간세계에 다양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다. “저녁 놀 빛나는(불타는) 하늘”에서는 동작성에 대한 ‘젊음’이라는 세계를 나타내고, “노을에 (곱게) 물든 반달”은 색채감에 대한 ‘행복’으로 비취지기도 하며, “저무는 하늘가의 노을”은 시간성에 의한 ‘서러움’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들은 대상에 대한 언어인식의 차이에 따른 언어표현의 결과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정주의 『노을』을 적어본다.

노을

노들강 물은 서쪽으로 흐르고

능수 버들엔 바람이 흐르고

새로 꽃이 핀 들길에 서서

눈물 뿌리며 이별을 허는

우리 머리 위에선 구름이 흐르고

---

\* 본과 교수

붉은 두볼도  
 헐떡이든 숨스결도  
 사랑도 맹세도 모두 흐르고

나무스늬 지는 가을 황혼에  
 홀로 봐야할 연지사빛 노을.

語彙史 研究는 흔히 일정한 의미를 지닌 語彙-단어몽치로서의-를 대상으로 통시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흔히 의미보다는 어휘구조 또는 어휘 형태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어휘사 연구를 진행하면 자연히 의미를 고정시키기에 의미 자체의 역사에는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 또는 언어인식에 따라 상상된 또는 인식된 대상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기호화할 때 그 기호화는 어느 정도로는 자의적일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면 결국 어휘구조나 어휘형태에 있어서도 그 자의성에 의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질경이’를 수레가 다니는 길에 마구 난다고 하여 한자어로 ‘車前草’라 할 수도 있고 또 베를 짜는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베쁘쟁이 (<뵤(布)#뵤(織)+앙이)라 할 수도 있는 예와 같다. 그런가 하면 ‘질경이’의 옛말 ‘길경’과 방언형 ‘베쁘쟁이’의 또 다른 형식 ‘베(口)짱구’ 등과의 혼효형인 ‘길짱구’를 문화어로 삼은 북한의 경우와 같은 예도 있을 수 있다. 또 ‘땅강아지(土狗, 螻蛄)’를 ‘狗’에 일단 의미초점을 두면서 동작성까지 고려하여 ‘개밥두드러기’라는 단어를 형성할 수도 있고, 기왕에 존재했던 ‘\*아줄(아술)’도 있고, 또 기왕에 존재했던 ‘-앙이’를 첨가시켜 ‘아지랑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형태적 유연성(motivation morphologique)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단어형성규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이 여러 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語彙史를 폭넓은 시각에서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일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기호가 그 언어사회에서 형성되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사회화함으로써 고정된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상상력으로 또다시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

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의미의 전환이 있을 수 있음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인간현상은 필연법칙이 아니라 가능의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기호와의 관련 아래 또는 언어의미와의 동질성 아래 기호와 개념 양쪽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고에서 다룰 ‘노을(霞)’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보면 비교적 덜 복잡한 역사를 지니는데, 그 대표적인 어형으로 ‘노을’ 계통과 ‘복새’ 계통이 있다. 이들의 형성도 결국 ‘霞’에 대한 인간의 상이한 인식에서 차이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의미적 유연성(motivation sémantique)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한 어휘사 연구에서처럼 문헌과 방언을 모두 고려하여 ‘노을’의 개략적인 어휘사를 엮어 본다. 그러면서 ‘노을’에서 파생된 관련의미의 변화도 고려하여 보려 한다.

## 2. 지금까지의 관심

지금까지 ‘노을(霞)’에 대한 관심은 語彙史 서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音韻史 서술에 초점을 둔 것들이었다. 일찍이 오구라 신째이(小倉進平 1929/1944)에서 단어 속에 또는 음절 사이에 나타나는 -b-와 관련된 관심을 보인 바 있는데, 여러 방언형들과 그 분포 지역을 보이면서 -b-이 나타난 방언형을 ‘-b-’의 유지형으로 지적하였다. 이 현상의 한 예로 ‘놀[no:] (霞·夕燒)’을 포함시켰는데, (一)[puk-sɛ] (二)[u-ne] (三)[hɛ-tɕi-gi] (四)[no:]을 중간 -b-의 유무에 따라 다시 구분하고서 함북의 전부, 함남의 함흥 이북 지역 및 강원도의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b-이 들어 있는 어형을 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서 이 [b]과 [w](또 모음)와의 대립은 이미 적어도 50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b]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그런데 함남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nu-gu-ri]를 -b-이 없는 [no:]에 넣고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복새’계를 비롯한 나머지 방언형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b-의 유무를 통한 음운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오구라 신째이였던 것이다.

한편 최학근(1968)에서는 <中間子音 /-b-//β-/>라는 속에서 'no:l(霞)'에 대하여 경북·경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방언형들을 제시하고 이외에 'naguri'와 'ʔpulse, ʔpulʔse, ʔpulʔse, purukʔse, ʔpulsal, pukʔse, ʔpukʔse' 등의 분포도 제시하였는데, 'naguri'형이 'naburi'형과 대응하고 있는 데에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 대응이 왜 또 어떻게 주목할 것인지 아무 언급이 없다.

李崇寧(1954)에서는 관심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A類> '나부리系' '나오리系'와 <B類> '복새系'로 분류하고 A類가 청년층에 세력을 잡아가고 있는 점과 B類가 전라도에서 충남의 해안 및 차령산맥 이남까지 미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지리방언학적 관심인 것이다. 李崇寧(1967)에서도 지역을 확대시켜 유사한 관심을 보였다. 중앙에서 개신된 어형 A類가 B類를 침식하지 못한 사실을 지리적으로 확대시키고 때로 세대차도 고려하여 관찰하려 한 셈이다. 자료는 오구라 신배이(1944)에 자신의 관찰을 보탠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노을(霞)'에 대한 관심은 요컨대 주로 방언학적인 것이되 '봉'과 관련된 음운사적인 것이었고 여기에 방언전파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노을(霞)'을 뜻하는 어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었다. 어휘사의 서술에서 어원을 함께 하는 단어들의 역사 특히 그에 관련된 음운사·형태사·의미사를 다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의 어휘사도 다루면서 상관관계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상에 나타난 어형들과 방언상에 쓰이는 어형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문헌상에서의 '노을'

문헌상에 나타나는 '노을(霞)'의 어형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출현도 드물다. 아마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랜 기록은 『訓蒙字會』(1527)의 것일 듯하다.

霞 노을하 (규장각본 上2b)

노을하 (존경각본 上2b)

즉 이음절어 ‘노을, 노을’이 보이는 셈인데, 이 두 어형이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문헌에 보이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霞	노을 (新增類合 上4a)
早霞	아침노을 (譯語類解 2a)
晚霞	저녁노을 (譯語類解 2a)
霞	노을하 (倭語類解 上2b)
霞	노을하 (同文類解 上1b)
霞	노을하 (蒙語類解 上1b)
霞	노을 (方言集釋 一5b)
霞彩	노을지다 (漢清文鑑 12a)
霞	노을하雲 (字類註釋)
	日氣相溥
놀	霞 (國漢會語)
霞	[하] 日旁形雲놀……(新字典)

위의 어형들을 보면 적어도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역시 ‘노을’과 ‘노을’ 두 가지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19세기 말엽에 이음절어로 축약된 ‘놀’이 보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편찬된 대역사전들에서도 확인된다.

『한불저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0)

노을, NO-EUL, ou 놀 NOL-I 紅色雲. ciel rouge, rutilant.

노을치다, NO-EUL-TCHI-TA, -TCHYE, -THIN. 波擊.

Vagues, lames de la mer. Faire des vagues(la mer)<sup>1)</sup>

『한영저언』(Corean-English Dictionary, 1897)

놀 L. 落霞(찌러질-\*락) (안기-\*하) A red sky; red clouds(쓰다)

1) 여기서 ‘노을’은 ‘波’를 뜻하는 것으로 ‘바다의 파도’를 뜻하는 ‘까치놀’의 ‘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할 것이다.

즉 19세기 말엽에는 ‘노을’ 이외에 ‘놀’이란 어형이 쓰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어형이 장음(L)으로 나타난 사실은 곧 ‘노을(노을)>놀’과 같이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음절로 축약되면서 보상적 장음화를 겪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축약된 장음형이 표준어형으로 선정되어 쓰여오다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에서 ‘노을’을 표준어로 삼고 ‘놀’은 ‘노을’의 준말로 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세기 말엽에는 ‘노을(치다)’이 ‘물결(波, vagues)’을 뜻하게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한불조언』에는 ‘노을’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복새’를 표제어로 실고 있다.

복새, POUK-SAI. 紅雲, Nuages rouges(le matin et le soir)

즉 아침과 저녁에 뜨는 ‘붉은 구름’(nuages rouges)을 ‘복새’라 하여 ‘놀, 노을’의 ‘紅色雲’과 類義語를 이루게 하였다. 다만 프랑스어 對譯에서는 ‘Nuages rouges’로 풀이하여 ‘하늘(ciel)’과 ‘구름(nuages)’의 차이를 보였는데, 『한영조언』의 ‘A red sky, red clouds’에 통하고 있다. ‘노을’을 뜻하는 ‘복새’는 현재 방언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어형의 하나로 본고에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헌상에 등장한 ‘霞’를 뜻하는 단어로 ‘노을, 노을, 놀’과 ‘복새’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복새’를 제외하면 이들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어형들만 보아서도 그에 앞서는 15세기 이전의 어형을 재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놀’이 『한영조언』에서 지시한 것처럼 장음이기에 ‘노을, 노을’로부터 보상적 장음화를 입어 변형된 어형이라는 점과 ‘노을, 노을’이 일단 히아투스를 보이는 사실로부터 두 모음 사이에 어떤 유성자음이 본디 있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탈락했으리라는 점 등이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가정되는 유성자음은 둘째 모음인 ‘오~으’로 보아서 국어음운사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뽕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언급해 둘 수는 있고 둘째 음절의 모음은 첫째 음절의 모음을 고려하여 ‘\*’을 우선 상정해 둘 수 있다. 즉 “\*노뽕”을 재구해 둔다. “\*노뽕”로 재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서술할 방언현상에 있다.

또한 19세기 말엽에는 ‘노을’이 ‘霞’만을 뜻하지 않고 ‘波’도 뜻하게도 되었음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다.

#### 4. 方言上의 語形들과 그 분포

‘노을(霞)’을 뜻하는 방언형들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크게 ① ‘노을’ 계통, ② ‘복새’ 계통 ③ 기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형태사와 음운사 등에 따라 세분될 수가 있다.

- ① ‘노을’ 계통 A<sub>1</sub>: 놀, 노을, 노울, 너을 등  
 A<sub>2</sub>: 농을, 농울 등  
 B<sub>1</sub>: 노리, 노오리, 노오리, 나오리, 나우리 등  
 B<sub>2</sub>: 농오리, 농우리 등  
 C<sub>1</sub>: (나불)  
 C<sub>2</sub>: 나부리, 나구리, 나고리 등

- ② ‘복새’ 계통 A<sub>1</sub>: 복새, 복새 등  
 A<sub>2</sub>: 빨새, 빨새 등  
 B<sub>1</sub>: 복살 등  
 B<sub>2</sub>: 불살, 빨살 등

- ③ 기타 계통 A : (지네) (지레)  
 B : 황혼

이들의 분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노을’ 계통은 경기·강원·충북의 대부분 지역과 그 인접의 충남 동부 일부지역 그리고 경북의 중부에서 북부 지역에 걸쳐 주로 분포되어 있고 ② ‘복새’ 계통은 경기의 해안 일부 지역과 충남의 대부분 지역 전남북의 모든 지역 및 경남북의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①은 중부지역에서 남부 내륙으로 좀 내려와 분포되어 있고 ②는 남부지역에서 해안선을 따라 서해와 동해로 북쪽으로 올라와 분포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문헌상에 보이는 ‘노을, 노을’은 주로 중부방언과 그 인접의 일부 방언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①의 C 즉 ‘-ㅂ-’을 포함한 방언형들은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후술할 바와 같이 함남북 지역으로 연결된다. ③기타 계통으로 A : ‘지네, 지레’와 B : ‘황혼’이 있는데 A는 경남 양산에서 ‘불살’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B는 제주도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小倉進平(1944)에는 ‘우내(u-ne)’가 경북 경주에서 그리고 ‘해지기(hæ-djigi)’가 ‘제주·성산·대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었다. 최근의 『濟州語辭典』(1995)에는 ‘해지기-붉은(저녁 놀)’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한에서 간행된 방언자료집에서 북한지역의 방언형들은 대체로 小倉進平(1944)에 기대고 있다. 丁泰鎭·金炳濟(1948)은 물론이요, 金亨奎(1974)가 그렇고 崔鶴根(1978)도 그렇다. 결국 60년 이전의 세월이 흘렀으나 우선 이에 기대어 북한지역에서의 ‘노을(霞)’의 방언형들과 그 분포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노을’ 계통 A : 놀, 노을, 너을 등  
 B : 노리, 누리, 노오리, 노우리, 너우리 등  
 C : 노불, 느불 등  
 노부리, 너브리, 느브리, 느부리, 누부리, 누구리, 노호리 등
- ② ‘불거지’ 계통 : 불거지 등
- ③ ‘복새’ 계통 : 복새 등

① 중에서 C는 함흥 이북의 함남과 함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고 그 이남과 대부분의 평북·평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 북부 지역과 황해의 내륙 지역에서는 A 또는 B가 쓰였으며 ② ‘불거지’ 계통은 황해의 서부 지역에서 그 중부 지역에까지 쓰였다. ③ ‘복새’ 계통은 보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小倉進平(1944) 이후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인데, 평북·황해의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것이다.

요컨대 북한지역에서 쓰이는 ‘노을’의 방언형들은 대부분이 ① ‘노을’ 계통인데, 다만 함흥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ㅂ’을 포함하거나 그와 관련 있는 방언형들이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새’ 계통이 서해안 일부의 황해·평안도에서 보임으로써 남한의 해안지대의 분포와 어떤 관련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해도의 서해안 및 그 내륙에서는 계통을 약간 달리할 듯한 ‘불거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 ‘불거지’에 대하여 『현대조선말사전』(1973)에서는

불거지[명]『저녁녘의 붉은 노을』을 달리 이르는 말

이라고까지 처리한 것을 보면 북한에서는 ‘복새’에 비해서 상당히 대접받았던 방언형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1992)에 이르러서는 ‘놀’은 ‘노을’의 준말로 처리하면서, ‘불거지’는 방언(황남)으로 처리하고 ‘불거리’를 “『붉은 노을』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전국 방언형들을 종합해 보면 ① ‘노을(노불)’ 계통 ② ‘복새(불거지)’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휘사를 서술하여 보자.

## 5. ‘노을’ 계통의 어휘사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노을’ 계통의 방언형들을 지금까지 조사된 방언자료집에 따라서 다시 분류·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②
A <sub>1</sub>	나불	나부리
A <sub>2</sub>	노불	노부리
		노호리
	느불	느부(브)리
		너부리
		누부리
		누구리
	①	②
B <sub>1</sub>	노을(울)	노으(오)리
	놀	노리
B <sub>2</sub>	농을	농우리

	농을	농오리
B <sub>3</sub>	너울(을)	나우리
		나오리(나오랭이)

즉, 위와 같이 자료를 개략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① 계통과 ② 계통의 차이는 형태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어근 또는 어기를 ①로 하고서 이에 파생접사 ‘-이(또는 ‘앙이’)가 첨가된 [[ N+이]N (또는 [[ N+앙이]N과 같은 파생명사구조를 상정하여 이해하기는 쉽다. 이 파생명사의 분포는 상당히 넓어 충북의 남부지역과 경북의 북부지역 그리고 강원도의 영동지역을 거쳐 함남북의 거의 모든 지역과 평남북의 거의 모든 지역 및 황해의 내륙지역으로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생명사를 모르는 지역은 위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부 방언권으로 단 방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단어형성은 방언적인 형태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북의 영덕·포항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고된 ‘나오랭이’는 [[나울]N+앙이]N과 같은 ‘-앙이’에 의한 명사파생명사임은 물론이다.

다음에는 음운사적인 면에서 방언차를 보이는 방언형들인 A 계통과 B 계통을 보자. 이들 차이는 ‘노불/노울’ 등과 같이 외견상으로 ‘ㅂ’의 유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ㅂ’의 유지 지역은 경북의 일부 지역과 함흥 이북의 함남북 대부분 지역이다.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ㅂ’이 들어나지 않은 방언형들인 B의 것들이 쓰이는 셈이다. 이러한 방언상의 차이는 곧 음운사적으로 보아 ‘-ㅂ-’이 ‘-ㅂ-’과 합류를 겪었는가 아니면 ‘-ㅂ-’->‘-w-’의 변화를 겪었는가에 따른 차이임에 틀림없다. 이른바 ‘-ㅂ-’이 ‘-ㅂ-’에 합류된 방언에서는 ‘나불~노불, 나부리~노부리’ 등의 방언형들이 쓰이고 ‘-ㅂ-’->‘-w-’의 변화를 겪은 방언에서는 ‘노울(을)~놀, 노오(오)리~노리’ 등의 방언형들이 쓰인다. 이는 종래의 ‘ㅂ’에 관한 연구에서 ‘노울’이란 단어를 포함시켰던 태도·해석과 크게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ㅂ-’과 ‘-ㅂ-’의 합류방언권 특히 중앙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함남북의 동북방언에서 ‘누구리’와 ‘노호리’가 드물게나마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곧 /ㅂ/과 /ㄱ(ㅎ)/ 사이에서 연약하기는 하나 음운대응을 보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grave]의 자음들 사이에서 다시 [±anterior]로 양극화됨으로써 극과

극이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동방향은 /ㅅ/ > /ㄱ(ㅎ)/이라 보는 것이 음운론적 보편성이나 음운론적 강도에 기대어 타당할 듯하다. 왜냐하면 언어습득이나 失語症의 과정 등 음운론적 보편성의 이론에서는 /ㅅ/이 /ㄱ(ㅎ)/에 비하여 흔히 강하며 음운변화에 있어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이병근 1977). 말을 바꾸어 역사적 과정으로 말하면, /ㅅ/이 /ㄱ(ㅎ)/에 앞서게 되고 /-ㅅ- / > /-w- /에 앞서 /-ㅅ- / > /-ㄱ/이 일어났으며, 그리되면 /-ㅅ- / > /-w- /의 음운변화를 겪은 방언형들과 비교하여 방언의 이 /-ㅅ- /에 대하여 /-ㅅ- /을 재구하게 되고 /-ㅅ- / > /ㅅ/와 같은 합류로 설명하게 된다.

다음에는 모음 쪽을 보되, 우선 둘째 음절의 경우를 보자. 'ㅅ'합류형에서는 'ㅅ, ㅅ'로 나타나고 '-ㅅ- > -w-'의 경우에는 'ㅅ, ㅅ, ㅅ'로 나타난다. 이들 모음을 놓고서 국어 음운사에 기대어 보면 'ㅅ'를 상정하여 둘째 음절을 '-ㅅ'로 재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여기서도 중세국어 단계에서 볼 수 있었던 '-ㅅ- > -오-'의 일반적인 변화를 겪은 셈이다. 이 '-오-'가 제2음절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모음들인 'ㅅ, ㅅ'로도 실현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면 '노을(을)'의 첫째 음절을 재구하여 보자. 음절모음이 '나, ㄱ, ㅅ, ㅅ'로 나타나 외형적으로는 이의 재구가 만만하지가 않다. 그러나 둘째 음절인 재구된 '-ㅅ'을 고려하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첫째 음절은 'ㄴ-'일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ㄴ/ > /ㅅ/의 음운변화에 의하여 'ㄴ- > 나'를 겪어 재구조화된 것들이 '나불, 나부리'와 '나오리, 나오랭이, 나우리' 등일 터이고 때로 보이는 '흙 > 흙'과 같은 /ㄴ/ > /- /와 '툭 > 툭'과 같은 /ㄴ/ > /ㅅ/에 의한 재구조화형이 '느브리, 느부리'와 '너부리, 너을, 너울'일 것이다.<sup>2)</sup> 문제는 '노을(노을), 노오리(노호리)' 등에서의 'ㄴ- > 노-'의 변화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둘째음절을 '-ㅅ' > '-을'로 재구하면 아무런 어려움은 없다. 즉 방언 음운사에서 볼 수 있는 후행 원순모음에 의한 'ㄴ'의 역행원순모음화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바로 '-ㅅ' > '-을'의 변화에 이어진 연쇄 변화로 재구조화된 형식이 '노을, 노을'인 셈이다. 요컨대

2) '너울'에 대하여는 다시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 ① \***ㄴ**뿔>나을~나뿔(나뿔, 나뿔)
- ② \***ㄴ**뿔>노을~노뿔(노뿔, 노뿔)
- ③ \***ㄴ**뿔>느뿔(느부리, 누부리, 누구(호)리)
- ④ \***ㄴ**뿔>너을(너을)~\*너뿔(너부리)

등과 같은 음운변화를 가정할 수가 있다. 이들 변화과정은 첫째 음절을 \***ㄴ**-'로 재구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가 없다.

끝으로 '농을, 농을'과 '농오리, 농우리'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는 아마도 \***ㄴ**뿔>느을>노을(노을)에 의하여 형성된 히아투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이 히아투스를 회피하기 위하여 /**o**/을 두 모음 사이에 삽입한 것이 '농을(을)'이나 '농오(우)리' 등의 방언형이 아닐까 한다. 이 히아투스 회피가 절대적이 아닌 것처럼 위의 히아투스 회피형도 그 분포가 제한적이다. /-**o**-/에 의한 히아투스 회피형은 충북의 청원·보은·옥천·영동 및 강원 영월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데, 이들 지역은 '노을' 계통에 속하면서도 변방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이다. '저을(錘)'에 대하여 히아투스 회피형인 '정을~정월' 등이 드물게나마 존재하는 사실에 평행되는 현상이다.

히아투스를 회피하기 위한 또하나의 흔한 방식으로 두 모음을 축약시키거나 두 모음 중에서 약한 모음을 탈락시켜 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방언형 '늘, 노리'가 그것들이다. 음장을 분명히 인식하는 방언권에서는 대체로 [no:l, no:ri]처럼 장음으로 실현되어, 이러한 방언에서는 잃어버린 모음을 음장으로 대체시키는 보상적 장음화를 겪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 형태소 또는 한 단어 내부에서 히아투스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인접한 모음을 잃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음절 보상으로 장모음화함은 한국어의 음장방언에서 일반적이다. 다만 '늘'은 '노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노을>노을' 이후의 '노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있는 것인지는 현재로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 결과 자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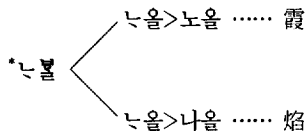
문헌상에서 볼 수 있었던 '노을, 노을, 늘'에 대하여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모두 방언형으로 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ㄴ**뿔'의 후세형들인 셈이다.

## 6. ‘노을’의 형태에 관련된 의미분화

‘노을’ 계통의 단어들은 말할 것 없이 ‘북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霞’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는 어형이 또한 있다. 그것은 15세기에 더러 볼 수 있었던 ‘\*노을/나을(焰)’의 경우다. 우리가 ‘노을’에 대하여 앞에서 재구할 수 있었던 어형은 “\*노을”이었다. 만일 이 재구형이 15세기에 볼 수 있었던 ‘\*ㅂ>w’의 음운변화를 겪었다면 그 형식은 ‘\*노을’일 수밖에 없는데, 15세기에 드물지만 이 ‘\*노을’이 등장하고 있음은 무척 흥미롭다. 졸고(1998)에서 15세기 어두에서의 ‘· ~ ㅂ’와 관련하여 지적한 예인데, 15세기에는 ‘\*노을’이 ‘나을’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인다.

- 그 고지 노을뵈고 貴흔 光明이 잇더라(釋譜詳節 十一·31)
- 靈흔 淸나오리 빛나(靈焰烜赫 金剛經三家解 三 29)
- 般若놀히오 金剛淸나오리니(般若鋒兮金剛燄 南明集 下3)

즉 ‘\*노을~나을’은 ‘焰, 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단어로 현대어로는 ‘불꽃’에 해당될 수 있어, 앞에서 재구한 “\*노을”과 형태상의 관련성은 물론이고 의미상의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 만일 이러한 의미상의 관련성을 인정하고서 ‘\*노을~나을’이 ‘\*노을>나을’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본다면, 이 역시 “\*노을”로 소급할 수 있고 ‘霞’와 ‘焰’이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의미분화와 함께 음운변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다.<sup>3)</sup>



위의 ‘\*노을~나을’ 이외에 흔히 합성어로 쓰이는 ‘까치노을, 까치놀’이 또

3) ‘霞’와 ‘燄’의 두 의미중에서 어느 것이 ‘\*노을’의 본래 의미였는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있다. 이는 『物譜』등에서 흔히 白頭波를 뜻하였던 것인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석양’이라는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까치노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다. 시간적인 제약은 없이 파도가 일 때에 희끗희끗하게 줄져 일어나는 물거품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다만 어둑해진 때에 또는 어둑 속의 빛에 白頭波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뿐이다. ‘까치노을’은 ‘까치’와 같이 검은색과 대조적으로 흰색이 강조된 것으로 인식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할미꽃’을 뜻하는 ‘白頭翁’과 같이 白頭의 인식에 초점을 둔 것이다.

四面이 거머어득 저곳 天地寂寞  
가치노을 찢는되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넘어흰 내 안히야 엇다가 2을호리오

여기서의 ‘가치노을’은 분명 ‘白頭波’를 뜻하는데, 현대시에서는 그 의미가 “땅거미 속에서 피는 물너울 속의 까치놀 같은 당신”(한승원, 포구에서)에서처럼 ‘물너울’ 속의 ‘까치놀’로 축소되어 쓰이기도 하고 “우리 저 세상 등실 등실 떠오르는/ 어제 오늘 까치노을 희뜩희뜩한 파도소리”(고은, 濟州회파람새)에서처럼 여전히 ‘물결(波)’에 관련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와같이 ‘노을’이 ‘波’를 뜻하게 된 것이 앞에서 보인 『한불조단』의 ‘노을치다(Faire des vagues)’의 경우이다. 만일 ‘白頭波’로 인식된다면 이때의 ‘노을(놀)’은 결국 ‘霞’의 의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게 된다. 이렇게 ‘까치노을(놀)’의 ‘노을(놀)’이 물결을 뜻한다면 또 하나의 단어 ‘너울(나울)’과의 어휘관계가 새로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너울’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 〓너울이 이는 바다/몇 겹의 산줄기는 바다의 너울 파도 같아 나무 사이로 짙은 보랏빛의 기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승녕, 대학가의 파수병)

이라 풀이하고 있는데, 『큰사전』(1947)에서는 ‘너울거리다=너울대다, 너울지다’ 등으로 수록하면서

너울거리다[계] 멀리 보이는 바다의 큰 물결이 굽이지어 흐르거나, 나무에 많은 큰 잎들이 춤추듯이 바람에 나뭇기다. [남] 팔이나, 날개 따위를 부드럽게 굽이지어 움직이다.

너울지대어] 멀리 보이는 바다의 물결이 거칠게 넘실거리다.

로 풀이하여 “(거칠게 넘실거리는) 바다의 큰 물결”이란 의미와 그러한 모습의 의태어처럼 쓰인 의미를 ‘너울거리다’에서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물론 현대시에서는 시의 문맥에 따라 시어 ‘너울’의 의미가 변용될 수도 있을 터인데, “百花가 이울거늘 너 혼자 피단말가/눈같은 그 꽃떨기 찬서리에 너울느네”(노춘성, 가을 三題)라든가 “기억의 물살이 너울로 돌아오는”(채수영, 어느 순수주의자의 슬픔) 등에서는 ‘작은 파도나 물이랑’처럼 풀이되듯이 ‘큰 파도’는 아닌 셈이다. 여기서도 ‘너울’은 분명 ‘파도’를 뜻하여 ‘까치노을’의 ‘노을’과 통합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너울’은 문헌상에서 보면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따라서 만일 ‘노을’과 ‘너울’(또는 ‘나울’)을 음운형식과 의미내용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어원을 가정한다면, ‘霞’에서 ‘波’가 늦은 시기에 분화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해안지역의 일부 방언에서 ‘너울(을)’, ‘나오(우)리’ 등과 ‘나부리, 너부리’ 등이 쓰이면서 ‘물결(波)’을 ‘너울’이라 쓰고 있음은 암시하는 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물결(波)’을 뜻하는 ‘너울~나울’에 대한 음운사 해석의 문제가 있다. 앞에서 “\*느불>...>너울’의 ‘·>ㄱ’를 ‘톡>탁’의 변화에 병행시켰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단어의 처음절에서는 뭐니뭐니해도 ‘·>ㄴ’가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경향일 수밖에 없다. “\*느불>느울>나울~나울’이 가장 일반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의 파생된 의미로서의 ‘물결(波)’에 대해서도 역시 ‘나울~나울’의 형성으로 본다면 ‘너울’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즉 음운사적으로 ‘·>ㄴ’와 ‘·>ㄱ’로만 설명할 것인가. 비록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의미상으로 보아 ‘나울나울~너울너울(나불나불~너불너불)’과 같은 의태어들도 “\*느불>...>나울~나울(너울)’과 관련은 없을까 하는 의심이 일단 든다. 여기서 ‘ㄴ/ㄱ’의 음운차이는 곧 움직이는 동작의 크기나 정도상의 차이를 보이는 뒤앙스의 문제가

있다. 만일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면, 역사적으로는 ‘나올’이 형성된 다음에 다투스의 차이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나올’로부터 의태성 상징어로서 ‘너울’이 파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음성상징에 의한 모음교체를 보인 내적파생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저 앞에서 『한불조언』에 제시된 ‘노을(치다)’이 ‘波(擊)’를 뜻함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물결’로 의미전환을 일으킨 경우에도 \*‘늑불>늑을~나올(~너울)’과 \*‘늑불>늑을>노을(~노을)’의 어휘사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 7. ‘복새’ 계통의 어휘사

‘노을’ 계통과는 어원을 전혀 달리한 ‘복새’ 계통의 방언형들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남북의 많은 지역과 전남북의 전역을 거쳐 충남의 대부분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경기·황해·평남북 해안의 일부 지역에 전파되어 있다. 19세기 말엽에 ‘복새’가 ‘노을’을 뜻하는 것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방언에서만 이 의미가 확인될 수가 있을 뿐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새’ 계통의 방언형들은 다음과 같다.

①	②
A <sub>1</sub> 복새, 복새	B <sub>1</sub> 복살
A <sub>2</sub> 빨새, 빨새	B <sub>2</sub> 불살, 빨살

이들의 분류는 형태사와 음운사를 고려한 것이다. ①과 ② 사이의 차이는 형태사적인 것으로 ‘-새’와 ‘-살’에 의한 차이라 할 수 있고, A<sub>1</sub> B<sub>1</sub> 와 A<sub>2</sub> B<sub>2</sub> 사이의 차이는 어두경음화를 제쳐놓으면 음절말자음 ‘ㄱ’과 ‘ㄹ’의 음운사적 차이로 집약된다.

우선 음운사적 차이에 의한 방언분화를 보면, 이 ‘-ㄱ’과 ‘-ㄹ’ 두 음운 사이의 다면적인 대립자질로 보아 어떤 음운변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ㄹ’의 자음군단순화를 상이하게 겪은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cf. 오구라 신페이 1944). 즉 ‘붉>붉-(紅)’이 단어경계에서 ‘복-



과 ‘불-’로 각각 달리 단순화하여 ‘복새, 복살’과 ‘불새, 불살’로 분화한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마치 ‘흙>흙’이 ‘흑(흑)’과 ‘홀’ 또는 ‘붉나무’가 ‘복나무’와 ‘불나무’로 ‘붉쥐’가 ‘박쥐’와 ‘빨쥐’로 분화된 것과 평행되는 것이다. 또 ‘돌(ㅎ)’이 ‘돌’과 ‘독(독)’ 나아가서 ‘돌맹이’와 ‘독맹이(>동맹이)’의 실현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통시론적으로 방언비교를 통하여 자음군을 재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붉-(紅)”이란 형용사어근을 재구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이다. 방언분포로 보아도 ‘붉->불-’이란 어근으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방언에서 ‘붉-’의 어간말자음군 ‘-ㄹ-’이 자음 앞에서 ‘-ㄹ-’과 ‘-ㄱ-’으로 실현되는 지역 분포도 ‘복새, 복살’과 ‘불새, 불살’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즉 ‘-ㄹ-’로 실현되는 지역은 강원 영동지역을 제외하면 경북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의 동부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불파, 불찌, 불꼬’ 등과 ‘빨새, 빨쌌, 불살, 빨살’ 등으로 같은 방식의 자음군단순화를 겪고, 기타 지역에서는 ‘복파, 복찌, 복꼬’ 등과 ‘복새, 복새, 복살’ 등으로 평행되는 자음군단순화를 겪고 있다.

‘복새, 불새’와 ‘복살, 불살’의 방언분화는 형태사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붉#새’와 ‘붉#살’로 각각 분석할 수 있는 구성일 것이다. 여기서 ‘새’와 ‘살’은 ‘냄새, 낚새’ 등에서의 ‘새(氣)’와 그리고 ‘빛살, 별살, 햇살’ 등에서의 ‘살(光)’에 해당할 듯하다. 즉 ‘노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휘적 요소들을 ‘붉#새’와 ‘붉#살’ 중에서 선택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서로 다른 어형을 창조한 셈이다.

황해도 서부지역에서 쓰이는 ‘불거지(불거리)’는 그 형성과정이 불분명하다. 이도 지리적 연계성으로 보아 “붉+어지(어리)”로 재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4)</sup> 문체는 [용언어간+어지(어리)]N과 같은 파생명사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불경이/빨강이, 거멍이/까망이, 누렁이/노랑이, 파랑이, 퍼렁이/푸렁이’ 등과 같이 ‘색채형용사+양이’와 같은 구성에서 온 파생명사들은 쉽게 발견되나 ‘-어지/-어리’에 의한 그것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

4) 또하나의 ‘불거지’가 있는데, 이는 淡水魚의 일종을 가리키는 物名이다. 강원·충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란기에 붉은 혼인색을 띤 피라미의 수컷을 ‘불거지’라 부르고 있다. 붉은 색에 홍미가 있다.

현재로써는 특히 황해도방언의 경우 이의 해결이 쉽지가 않다. [동사어간+어지]의 경우는 ‘남어지’처럼 가능하다. 또 ‘떨거지, 따라지’ 등에서도 그 가능성이 보인다. ‘우거지’의 경우에는 ‘옥-’과 같은 동사어간을 설정하여(cf. 우거지, 우거리/오거리) ‘기운이 줄어지다’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김민수 편(1998) 『우리말 語源辭典』에서는 명사 ‘우충’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황해도방언에 대한 조어법 연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복새’ 계통의 방언형들이 ‘붉- (紅)’과 의미상의 관련이 있다면 그 관련은 ‘노을’ 계통과 일정한 의미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8. 마무리

지금까지 ‘노을(霞)’을 뜻하는 어휘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다. 특히 ‘노을’ 계통과 ‘복새’ 계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을’ 계통은 문헌과 방언을 종합하여 “**노을**”을 재구성하였는데, ‘**봉>비**’의 합류방언에서는 ‘나불/나부리, 노불/노부리/누부리/너부리’ 등으로 분화되었으며 이 방언속에 ‘**비~ㄱ(ㅎ)**’ 대응을 이루는 ‘누구리/노호리’로도 분화되었고, ‘**봉>w**’의 음운변화를 겪은 방언에서는 ‘노을/노오리, 놀/노리, 너울/나우리’ 등으로 분화되었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히아투스를 회피하기 위하여 ‘**농을/농오리, 농을/농우리**’ 등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편 “**노을**”의 의미분화와 관련하여 ‘**불꽃(焰)**’을 뜻하는 15세기의 ‘**노을/나을**’을 같은 기원에서 분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까치노을**’에서처럼 ‘**물결(波)**’의 의미로 19세기에 ‘**나을/너을**’로 분화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너을**’은 ‘**나을**’로부터 음성상징에 따른 파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였다. 또 형태사적으로는 ‘**노을/노오리**’ 등과 같은 [[N+이]N과 같은 파생어 형성에 의한 방언분화를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계통을 달리한 ‘복새/복살’과 ‘빨새/빨살’ 등은 “**붉-**”을 공통으로 갖되 자음단순화의 상이한 선택에 따라서 ‘**복-**’과 ‘**블-**’로 나뉘고 형태사적으로는 ‘**새(氣)**’와 ‘**살(光)**’의 상이한 선택에 따라 방언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황해도 서부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불거지/불거리’도 ‘불-’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면서도 [형용사어간+어지/어리]의 구성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겼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못한 방언형들 ‘우네, 지네/지래’ 등과 ‘해지기/해지기-붉은’ 등이 있는데, 제주도방언에서 쓰이는 위의 것은 [[히(日)#디]+기]를 가정할 수밖에 없으나 앞의 것은 역시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필자 자신은 이제 ‘지는 노을’의 언저리에 서 있다. 그래도 이 ‘노을’의 어휘사 서술이 ‘노을之境’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는 마음은 속일 수가 없다.

## 참고문헌

- 金敏洙 편(1998), 『우리말 語源辭典』, 太學社.  
金完鎭(1972),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語學研究』(서울대) 8 : 1.  
金載弘 편저(1997), 『詩語辭典』, 고려대학교출판부.  
宋喆儀(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國語學叢書 18), 太學社.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1977, 塔出版社.  
李秉根(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_\_\_\_\_ (1997),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冠嶽語文研究』(서울대) 22.  
\_\_\_\_\_ (1998), 「'마름(菱仁)'의 語彙史」, 『방언학과 국어학』, 太學社.  
李崇寧(1940), 「·音放」, 『震檀學報』 12.  
\_\_\_\_\_ (1954), 「脣音放—특히 脣輕音「병」를 中心으로 하여」, 『서울大學校論文集』 1輯.  
\_\_\_\_\_ (1967), 『韓國方言史』(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崔鶴根(1968), 『國語方言研究』, 서울대出版部.  
오구라 신베이[小倉進平](1929), 『平安南北道の 方言』(京城帝大 法文學部 研究調査冊子 No. 1).  
\_\_\_\_\_ (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 岩波書店.

## 資料

- 丁泰鎭·金炳濟(1948), 『朝鮮古語方言辭典』, 一成堂書店.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대出版部.  
崔鶴根(1978),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濟州方言研究會(1995), 『濟州語辭典』, 濟州道.  
기타 辭典.